

## 韓國服飾에 나타난 數의 象徵性\*

강 윤 숙  
상지영서대학 의상과 교수

### A Study on the Symbolism of the Number Expressed in Korean Costume

Youn-Sook Kang  
Prof., Dept. of Apparel Design sangji youngseo college  
(2000. 7. 26 투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ymbolic meaning of oriental numbers based on Yin-Yang(陰陽) theory. Based on the thought of Yin-Yang Wu-Hsing(陰陽五行), the number was divided the number of the heaven (positive number) 1, 3, 5, 7, 9 from the number of the earth(negative number) 2, 4, 6, 8, 10. It was described very well in the dress and its ornaments and the folk customs. In the costume of the Court, there were 9, 7, 5, 3 patterns costume for the king and queen. Even though an even number, 12 patterns costume for the emperor symbolized 12 months and made it of the principal of the universe.

Korean traditional costume Han-bock(韓服) was formed with the three dimensional principal of circle(圓·○), square(方·□) and triangularity(角·△). In the middle of odd numbers, number 3 was regarded as a holy number of the heaven(天), the earth(地) and a man(人). Taken for a highest number, number 3 had the symbolism of wishes for good fortune. Number 10 and number 100, which meant the fullness and the long life, were used regularly. With Ten longevity patterns(十長生紋), the feast of a hundred-day-old baby, our race prayed for the healthy long life.

As mentioned above, the symbolism of the number though the costume preferred the positive number to the negative one. Accommodating to the universal principal and the cycle, the deep meaning and the symbolism of the number has been implied the mental wishes.

Key Words : 수의 상징성, 복식에 나타난 수

---

\* 본 연구는 상지영서대학 1999년도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I. 서론

우리의 전통 복식은 고유한 민족 의상으로서 우아한 아름다움과 부드러운 조형적 형태미를 가지고 있으며, 내적인 철학적, 정신적 의미를 포함하여 자연관과 사회적 문화를 반영한다.

전통복식의 문양, 색채, 형태, 장식 등의 구성 요소는 우리 민족 특유의 내재된 정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 복식을 살펴보면 옷의 개념보다는 사고와 철학의 관계를 유지하여 인간과 의복의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특정한 “數”관념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수에 대하여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선조들의 전통복식에 나타난 數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의생활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인간의 몸가짐, 옷차림도 天數를 다스려 바르게 禮로써 입도록 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동양사상 등의 영향 받으면서 변화과정을 통하여 한국적 사상체계가 고유의 복식문화를 형성하였다.

數는 수학적 숫자이기 보다는 특수한 기호 상징으로 우리의 삶과 의생활에 이용된 것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고대 중국의 기초이론 數는 天은 1로, 地는 2로, 人是 3이라고 상징하며 자연과 인간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天數(陽數)와 地數(陰數) 그리고 生數와 成數는 우주적 수의 순환과 신비를 품고 만물의 힘으로 작용하면서 복식문화의 상징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우리 민족은 홀수(陽數)를 즐겨 사용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三의 수는 신성의 수로서 큰 의미가 부여되어 복식 및 중요한 관습의 근본 바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數가 복식문화에 뿌리깊게 표현되어 전통적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복식에 내재된 고대 동양적인 사상 체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과 고대 동양의 수를 규명 한 후 우리의 복식문화에 내재된 數에 대한 상징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복식에 표현된 數와 관련된 철학적 견지에서 해석된 의미를 분석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전통적 관념을 알아보고 이해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數와 관련된 문헌자료, 유물조사자

료, 박물관(전시관)자료, 보고서 등의 자료를 조사하여 복식에 나타난 수의 상징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우리 나라 복식과 생활 주변에 잠재되어 있는 數가 지닌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數”의 상징적 의미와 사상체계를 분석할 이론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思辨哲學 논의에서 볼 때, 중국 고대 철학자들은 數를 세계의 질서와 생활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한 사유 작용에 필요한 일종의 기호나 상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周易에 의하면 天을 1이라는 數로 상징하고, 地을 2로, 人을 3이라 상징하여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입체적으로 추상하여 우주를 형상화했다.<sup>1)</sup> 이러한 중국 고대 數의 상징은 우리 나라의 고대 신화, 종교, 철학,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중국 철학에서 수의 분류는 양적 가치보다는 신비적이고 呪術적으로 흥미 있는 상징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고대 중국 철학에서 수는 創造라는 환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숫자가 易의 기본 의미로 표시된다. 그들은 대체적으로 숫자를 특수 집단의 질을 표시하거나 “단계의 질서”로 사용한다. 때문에 단계(天-地-人)의 역할은 기록된 순서에 따른 儀典의 기능과 연결된다.<sup>2)</sup> 이러한 숫자는 상징적 효율성을 소유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동양의 수는 서양의 數字에서처럼 基數(對象)와 變數(無限)의 관계와 같은 수학의 추상개념이 아니다. 동양의 數 記號는 종이 위에 쓰여진 사실적 수 기호가 아니라 수의 상징인 것이다.<sup>3)</sup> 수는 기호와 주어진 상징에서 추상화의 원리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른바 數學的 存在論이다. 그들이 우주가 數 사이에서 볼 수 있는 比例=調和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되어 있다.<sup>4)</sup>

동양의 사상에서는 음양, 오행의 조화관계를 설명하는데 이는 우주간에는 만물의 象이 있다. 이 象에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소리, 냄새, 맛 등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그들을 五數로 나누면 그 본질은 한층 명확해 진

다. 方位 즉, 「空間」도 八方位 혹은 中央을 넣어 九方位로 취급했을 때 그 본질은 보다 분명해지는 것이다. 「時間」도 눈에 보이지 않는 象이나 이것을 一年, 四季, 一月 등으로 나누면 이것은 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象도 數로 바꾸어 놓는 것에 의하여 관찰이 가능하고 그 곳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理를 알 수 있다.<sup>5)</sup> 象과 數는 신비성에 바탕을 둔 일종의 우주관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대인들은 자연관에 대한 경외감과 인간의 능력 보다는 자연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하여 숭배정신사상이 여러 가지 형태로 투영되어 왔다. 수에 관한 상징도 일종의 샤아머니즘 측면에서 해석된다. 그러므로 數理에 대한 문제도 샤아머니즘의 본질을 규명함으로써만 그 해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사상의 기초인 증용과 조화의 논리는 수의 실제적 적용에서도 형식 논리에 따른 합리성이 아니라 결국 넓은 뜻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속에서 질서와 법칙을 直觀하고, 그 내용을 이성적으로 체계화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는 자연의 법칙을 의미하여 자연의 질서에 따라 天·地·人의 구조에 결부시켜 현세적 생활을 자연과의 조화로 사용한다는 논리이다. 수는 숫자이면서도 또한 기호의 매개로 해서 가치와 규정을 제시하여 질서 공간을 지배하도록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양의 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문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주역(周易)의 수

〈易〉은 〈易經〉 또는 〈周易〉이라고도 한다. 〈주역〉은 음양이라는 對待개념의 상호관계를 만물의 생성 변화를 설명하는 일종의 변증법이다. 易의 구성은 數의 관념과 관계가 깊다. 一과 二 즉 奇數를 陽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奇數를 陽으로 보고 偶數를 陰으로 보는 易의 입장과 합치되는 것이다. 易에서 八卦가 생기는데 그 전개과정은 太極이 나누어져 一陽 一陰이 二가 되고, 이 二를 두배하여 四, 四를 두배하여 八, 三書의 卦가 8개 생기는데, 이것을 八卦 혹은 三書卦라 칭하고 여기에 의

하여 비로소 象이 생긴다. 이 팔괘의 상은 역의 기본인 것이다. 八卦기본은 一(剛爻 陽爻)와 二(柔爻 陰爻)로 성립되며, 六十四卦의 기본은 ☰(乾) ☱(兌) ☲(離) ☳(震) ☴(巽) ☵(坎) ☶(艮) ☷(坤)의 이른바 八卦다. 八괘 만으로는 무궁무진한 변화의 세계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다시 겹쳐서 六十四卦로 만들었다.<sup>6)</sup> 〈주역〉은 64卦 384爻로 되어있다. 〈易序〉에 “易이란 음양의 道이니, 卦란 음양의 物이요, 爻란 음양의 動이다. 卦가 비록 다르지만 같은 것은 奇偶이며, 爻가 비록 다르지만 같은 것은 九六이다.”라 하였듯이 易은 陰陽의 原理이다.<sup>7)</sup> 〈주역〉에서 倫理地平으로서의 象數와 數理는 서로 表裏하며 서로 輔相하며 易의 바탕이 된다. 수리를 떠난 象數가 없고 象數를 떠난 수리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天文, 地理, 氣象, 日晷, 測雨, 音律, 尺度の 해석도 있을 수 있다. 음양과 오행의 이치 또한 天地, 鬼神(歸伸)의 운행으로서 倫理와 하나로 설명된다. 음양은 어떤 것의 실체가 아니라 작용과 행위 자체를 가리킨다.<sup>8)</sup> 수도 일정한 관계 안에서 합리적 행위의 표현이기도 하다.

주역에 나타난 기본수는 1부터 10까지 이다. 하늘의 홀수(1, 3, 5, 7, 9)이고, 땅의 짝수(2, 4, 6, 8, 10)이다. 天은 양의 대표이고 地는 음의 대표라 할 경우, 홀수는 양수이며 짝수는 음수이다. 즉, ‘天地之數’는 음양 관념이라는 주역의 근본 관념을 수로 상징한 것으로 이것이 자연의 변화 현상을 해석한다. 역학에서는 1에서 5까지를 生數, 6에서 10까지를 成數라고 한다. 음효와 양효는 작용하는 수이므로 성수를 쓰는데, 10은 완전수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6, 7, 8, 9가 남는다. 이때 남는 6, 7, 8, 9를 四象數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홀수인 陽數는 7과 9이고, 짝수인 陰數는 6과 8이다.<sup>9)</sup> 이것은 주역의 원초적 수리의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八卦 전개과정은 〈표 1〉과 같다.

<표 1> 八卦의 전개과정

太極								
陰				陽				兩儀
太陰		少陽		少陰		太陽		四象
坤	艮	坎	巽	震	離	兌	乾	八卦
八	七	六	五	四	三	二	一	

## 2. 하도(河圖)·낙서(洛書)의 수

하도와 낙서는 주역의 근본원리를 담고 있는 상징체인데, 여기에서는 흰동그라미는 홀수로서 양을 표상하고, 검은 동그라미는 짝수로서 음을 표상한다.

河圖의 理數와 洛書의 氣數는 그 수의 배열과 함께 세계를 상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을 체계화하는 것을 '理'라 하고, 음과 양이 상호 교환하는 것을 '氣'라 하며, 그 과정에서 자연 사물이 생성 소멸하는 것을 數로 보았다. 때문에 數란 하늘의 원리와 음과 양의 체계인데, 이러한 생성·소멸의 자연 원리를 모두 포섭하려는 설계도가 "하도"인 것이다. 만물이 생성 소멸하는 수를 하도에서는, 하늘은 하나, 땅은 둘, 하늘은 셋, 땅은 넷, 하늘은 다섯, 땅은 여섯, 하늘은 일곱, 땅은 여덟, 하늘은 아홉, 땅은 열이니, 하늘의 수가 다섯, 땅의 수가 다섯인데 각각 합하면 하늘의 수가 (1+3+5+7+9) 25가 되며 땅의 수가 (2+4+6+8+10) 30이니 모두 합하면 55가 된다. 이것이 변화를 주도하고 신과 상통하는 원리인 하도의 구성이다.

하도에서 나타난 수는 현상 이전의 본체계 원리를 체계화하려는 시도로서 先天數라고 한다. 이 선천수는 질양이 모두 같은 등수로써 '調和의 體'를 완성한다. 그러므로 장소와 위치만을 상징할 뿐이지, 질양의 대소, 경중, 장단, 강약과 같은 氣수를 나타내지 않는 理수라 하였다. 1과 6은 물(水)이며 북방이고 겨울이다. 3과 8은 나무(木)이며, 동방이고 봄이 된다. 2와 7은 불(火)이며, 남방이고 여름이다. 4와 9는 철(金)이며, 서쪽이고 가을이다. 5와 10은 흙(土)이며 중앙을 상징한다.<sup>10)</sup>

하도의 도형을 보면 1(하), 2(상), 3(좌), 4(우), 5(중)의 수가 안에 있고 그 밖에 6(하), 7(상), 8(좌), 9(우), 10(중)의 수가 둘러싸여 있는 모습으로 총 55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1, 2, 3, 4, 5는 안에 있어 근본이 되니 만물의 생명을 낳는 生數라 하고 6, 7, 8, 9, 10은 밖에 위치하여 형상을 갖추니 만물의 형체를 이루는 成數라고 한다.<sup>11)</sup> 따라서 각각 음양의 관계를 가지며 하도는 우주와 만물이 순환하는 근본원리를 표현한 것이다. 하도의 변화 측면에서 보면, 수→목→화→토→금→수의 '相生'하는

순환적 운동을 표상한다.

낙서는 1과 9, 2와 8, 3과 7, 4와 6 등 홀수끼리 그리고 짝수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다. 같은 양, 음끼리 이기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부조화의 관계이다. 그리고 오행으로 보면 수→화→금→목→토→수라는 '相剋'의 순환적 운동을 하고 있다. 즉 하도가 음양의 '調和'와 '相生'을 상징한다면 낙서는 음양의 '不調和'와 '相剋'을 상징한다. 조화·상생은 '양'에 속하며 부조화와 상극은 '음'에 속한다.<sup>12)</sup> 즉 하도와 낙서는 상생과 상극을 동시에 머금고 있다. 이것은 양속에 음이 있고 음속에 양이 있다는 음양의 논리를 상징한 것이다.

대체로 '하도와 낙서'를 대칭, 즉 음양, 상생·상극으로 편제하였으니, 하도는 5행이 상생하는 원리라면, 낙서는 5행이 상극하는 원리로 모두 자연순환 법칙이다. 하도의 1 2 3 4 5는 5행을 낳게 하는 生數이다. 그리고 1 3 5 7 9는 홀수이며 陽數요 天數다. 2 4 6 8 10은 짝수로서 陰數이니 地數를 표시한다. 그러므로 하도와 낙서는 음양관계에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도와 낙서는 우리의 數가 자연 사물의 생성 소멸, 순환 반복 과정에서 결국 음양의 체계인데 그것들은 순환의 질서라는 기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도와 낙서의 卦象은 주역의 근본원리를 담고 있는 사상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天數·地數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天數·地數

天數(陽數)·홀수					地數(陰數)·짝수				
1	3	5	7	9	2	4	6	8	10

## 3. 천부경(天符經)의 수

<천부경>은 1에서 10의 숫자로 모든 우주 만물의 비밀을 설명하고, 그 열 개의 숫자는 모두 無에서 나오지만 그 기본 비밀은 하나(有)가 없음(無)에서 나오고 다시 그 하나는 셋으로 부풀어 난다고 말한다.<sup>13)</sup> <檀君世紀序>에 이르기를, 三神一體의 道는 大圓一의 뜻에 있으니, 라고 하였다.<sup>14)</sup> 이로써 천부경의 중심 사상이 「三神一體之道」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천부경의 기원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수만년 전으로 상고시대에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면면히 전래되어 내려오고 있다. 天符經의 내용을 살펴보면

一始無始一析三極無 盡本天一一地一二人  
一三一積十鉅無匱化 三天二三地二三人二  
三大三合六生七八九 運三四成環五七一妙  
衍萬往萬來用變不動 本本心本太陽昂明人  
中天地一一終無終一

一이라는 것은 곧 첫 번째 陽이라는 뜻이 되어 陽은 無에서 시작된다는 뜻이 된다. 그 첫번째의 陽의 시작은 결코 하나가 아니라 一始에 셋(三極)으로 갈라지는 것이며, 그 셋이야말로 다함이 없는 것(無盡)의 본이 되는 것이다. 이 때의 셋 중에서 첫 번째로 陽(天)으로서의 一이며 두 번째로 陰(地)로서의 二이며 세 번째로 兩性(人)으로서의 三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결국 하나가 三分節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점은 이미 세 개의 形態素인 圓(○), 方(□), 角(△)이다. 즉  $1=3$ 이라는 公理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一積十鉅>라는 말은 곧  $3 \times 10 = 30$ 이 된다는 뜻이며, 30이 되는 동시에 그것은 다시 三으로 되돌아감(無)으로써 그 자리에 하나의 입방체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會三經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세 개의 원소인 ○, □, △이 각각 1, 2, 3배의 比率로 새로운 자리로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先天數(創造의 基本數)는 九로서 完結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天符經이 <一積十鉅無>라고 한 것은 十이 특수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十이란 다시 無, 즉 제로로 되돌아오는 동시에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라는 것이다.<sup>15)</sup>

天二地二 地二三 人二二 大三에서 三은 性·命·精이 갖추어진 수정란이라고도 하며 삼을 알아보기 위해 「진리도 풀이순서」를 참고하면, 天二는 心, 地二는 氣, 人二는 身에 해당한다. 따라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은 성·명·정을 갖춘 생명체에 심·기·신이 모두 갖추어짐을 말하고, 삼은 그러한 「생명체」를 말한다.<sup>16)</sup> 六生이라는 말은 결국 先天에서 後天으로, 다시말해서 生命體(物質)의 原象이 움직임으로써 하나의 완성된 운동체로서의 實體가 탄생

된다는 것을 뜻한다. 七八九란 數字는 後天數가 되기 때문이다.

三四成環이란, 한 개의 물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나 어떠한 물질적 構造物을 형성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즉, 三이란 三極의 세계이며 四란 四分節의 세계를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三極의 세계와 四分節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물질이 제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구른다(轉)는 것, 이를테면 한 차원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三四成環이란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요소가 結合된다. 그 다음 五, 七, 一의 數로 표시된 물질의 分子가 기묘하게 활동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그러한 無理數는 자연물들이 그대로 지니고 있는 實數로서 단순한 상태의 물질에서 복합적인 것으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활동하게 되는 생명체와 같은 것이다.

一終無終一은 經文의 첫부분에서 밝힌 것처럼 결코 하나가 아니라 無이며, 그 無는 一과 三을 내포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천부경에서 다시 유의해야 할 것은 經文의 첫 문장과 끝 문장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과 또한 經文의 字數가 모두  $9 \times 9 = 81$ 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9 \times 9 = 81$ 은 가득찬(萬) 수이며 다시 그것은 9, 9,  $9(8+1)$ 가 됨으로써 다시 3(세자리)으로 되돌아오는 數가 되기도 한다. 요컨대 우리는 여기에서 성스러운 辨證法을 확인케 된다.<sup>17)</sup> 천부경은 일사무시일에서 시작하여 일종무종일로 끝을 맺는데 이는 끝없는 순환을 상징하는 우주의 섭리를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 4. 오행(五行)의 수

오행이란 목, 화, 토, 금, 수 다섯 가지를 말한다. 우리의 전통 오행설은 삼라만상이 오행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여 왔으며 오행의 數理도 오행 속에 음양이 있어 그것이 다른것과 연관된 기능을 지니 여러 면에서 응용되어 왔다.

오행에 관하여는 『舊唐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세상의 만물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다섯 가지 사물들이

있으니 그 첫째는 水요, 둘째는 火요, 셋째는 木이요, 넷째는 金이요, 다섯째는 土이다.

『呂氏春秋』에서는 五行을 五氣라 하였다. 五氣란 다섯가지 성질의 氣이며, 이들 氣는 늘 운동하고 유행하므로 오행이라 하였다. 오행의 본질은 모두 氣이며, 음양 역시 氣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음양오행 관념은 물질적인 것이나 점차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 비교적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數와 오행의 배합이다. 음양오행가들은 수로 볼 때 봄은 팔, 여름은 칠, 중앙은 오, 가을은 구, 겨울은 육이라고 생각하였다. 원래 『홍범』에 기록되어 있는 오행의 순서는 "첫 번째는 수이고, 두 번째는 화이고, 세 번째는 목이고, 네 번째는 금이고, 다섯 번째는 토이다." 음양오행가들은 이 순서가 일에서부터 십까지의 순서와 비례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들은 수에도 신비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일·이·삼·사·오를 수·화·목·금·토의 '生數', 육·칠·팔·구·십을 수·화·목·금·토의 '成數'로 보았다. 사시와 배합된 수는 오행의 이른바 '성수'이다.<sup>18)</sup> 오행의 生數·成數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五行 生·成數의 배당표

生 數					成 數				
水	火	木	金	土	水	火	木	金	土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 5. 십간(十干)·십이지(十二支)의 수

십간, 십이지를 이루는 여러 가지 현상은 만물의 조화인데 天干은 하늘을 나타내는 양에 속하고 地支는 땅을 나타내는 음에 속한다. 십간·십이지는 음양의 오행의 이치를 설명하는 부호이며 음양의 이치와 홀수는(양), 짝수는(음)으로 표시한다.

二陰과 一陽은 氣 二를 이루고 二陽과 一陰은 氣 三을 이룬다. 기를 합하면 흡이 되고 陰을 합하면 양이 되며 양을 합하면 律이 된다. 그러므로 五音·六律이라 한다. 흡이 스스로 배가 되어 日이 되고 음이 스스로 배가 되어 辰이 된다. 그러므로 日은 十干이고 辰은 십이지이다.<sup>19)</sup> 십이지는 易理의 이치로 해석된다. 우리는 天干과 地支를 氣의 기호로

만들어 基本數나 순서상의 숫자, 숫자가 무엇을 "상징"하느냐는 초점에서 사람들은 그 상징 기호야말로 진실을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사람들은 숫자상으로 서술하는데 일련의 세 가지 기호를 사용한다. 하나는 열자리 行, 즉 十干이라고 하는,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가 그것이며, 둘째는 十二支라는 방법으로,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가 그것이다. 마지막은 十進法으로 1, 2, 3,..... 9를 基數로 하고 9에 1을 더한 것을 10으로 하는 숫자이다. 그들은 이 세 가지 방법의 기초들을 구분 없이 수라고 표시한다. 이러한 10간과 12지에 속하는 수들은 대체적으로 物象을 포함한 상징으로 사용한다.

10간과 12지의 기호들은 60甲子를 하나의 궤도로 하여 일상 생활의 설계도를 형성한다. 이러한 궤들은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랜 생활 속에서 관습상의 범주와 자연 변화와의 관계를 일상생활에 적용하게 되면서 만들어졌다.

10간과 12지의 기초들이 하나의 표제로서 공간과 시간 속의 위치를 통일화하는 서로 다른 많은 현실들을 구체화하는 반면, 그 기초를 통해서 성립된 순환들은 우주를 형성하는 질서 정연한 전체의 구성을 연대적으로 드러내도록 되어 있는 두 수의 분석에서 성립된다. 수의 상징적 효율성을 소유하고, 이 여러 가지 순환적 기초의 서술적인 능력, 즉 공간적 구성과 시간적 배치들을 암시하면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호속에 내재되어 있는 十干·十二支의 수를 정리해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十干·十二支 數理 배당표

五行	木	火	土	金	水
天干	甲·乙	丙·丁	戊·己	庚·辛	壬·癸
地支	寅·卯	巳·午	辰·戌	申·酉	亥·子
數	三·八	二·七	五·十	四·九	一·六

## III. 복식에 나타난 數의 象徵性

### 1. 陽數(奇數·홀수)와 陰數(偶數·짝수)

민속이나 복식에서 발견되는 '홀수' 사용은 미

의식보다는 수의 상징적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복식에 나타나 있는 수에 관련된 문양, 장식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繫辭傳』은 天一地二天三地四天五地六天七地八天九地十이라 하여 天은 모조리 홀수로, 그리고 地는 또한 모두 짝수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곧 數가 물질의 특수한 성질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陽(+)은 모두 홀수이며 陰(-)은 짝수인 것이다. 또 수가 물질이 발생하는 순위나 사물의 변천하는 어떤 순서를 나타낸다는 것은 數의 규칙적인 배열법으로 보는 일이다

그 수들은 순환의 질서라는 범주 내에서 순환한다. 순환의 숫자를 배열하기 위해 수를 +자형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직각과 정방형의 형태가 필수적이다. 그것은 공간과 함께 지상의 질서를 의미하게 된다. 또 땅이나 정방형을 상징하는 숫자는 2라는 偶數이며, 반대로 하늘이나 원형을 상징하는 숫자는 3이라는 기수가 된다. 실제로는 하늘(男性, 陽, 3, 奇數)을 상징하는 수이며, 땅(女性, 陰, 2, 偶數)을 상징하는 수로써 설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서 하늘과 땅을 남성과 여성 그리고 이것을 확장하여 기수와 우수로 대칭하여 '수의 상징'을 체계화한 것이다.<sup>20)</sup>

天一, 地二, 人三, 三三九, 九九八十一, 一은 일을 주관한다. 하루의 수는 10으로 사람을 주관한다. 2는 偶數를 주관하는데 우수(偶數)에 이어주어 기수는 辰(十二辰)을 주관하며 진은 달을 주관한다.<sup>21)</sup> 숫자에도 음양이 있어 양수를 짝으로 상징하는 원리이다.

예를 들면 祭禮에 올리는 鼎과 俎의 총수는 奇數(陽)로 하고 籩과 豆는 偶數(陰)로 하는데, 이것도 음양의 理에 기초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음양의 理에 따라서 구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선택된 수가 모든 사물과 가치를 분류하고 상징적 본질을 포함한다. 이의 경우도 기수(양)에 비중을 크게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조상들은 홀수가 겹치는 날을 陽氣가 왕성한 吉日로 여겨 명절로 삼았던 예로 보면, 1.1(설)·3.3(삼짇날)·5.5(단오날)·7.7(칠석날)·9.9

(중양절) 등이 그러한 날이다.<sup>22)</sup>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양수 一, 三, 五, 七, 九라는 數字는 하나의 神聖數다.

이때의 신성수란 그 數가 모두 신비함을 보여주는 數象임을 말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이때의 수상이 뜻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문자가 되는 것이다. 양수가 곧 상서로운 수 '吉數'로 여겼다.

## 2. 服飾에서 본 陽數

복식, 민속에서 양수 사용은 행복과 벽사의 의미로 해석되는데 홀수로 된 것을 살펴보면 치마 속에 받쳐입는 무지기는 상류층에서 치마 안에 입는 속치마의 일종이었다. 모시 열두 폭으로 삼층, 오층, 칠층으로 만들어 걸치마를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sup>23)</sup> 또한 치마주름의 수를 奇數로 잡았는데, 이는 근심을 의미하는 주름에 행운을 상징하는 奇數를 사용함으로써 액막음을 하고자 한데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sup>24)</sup>

양수의 사용은 누비옷에서도 볼 수 있다. 누비는 기법에 따라 오목누비, 중누비, 잔누비, 줄누비, 남작누비, 상침누비 등으로 갈라 볼 수 있는데 상침누비는 실을 세 땀 내지 다섯 땀 홀수로 연속하여 누비는 방법이다.<sup>25)</sup>

또 전염병이 유행할 때 버선을 문기둥에 걸어 놓기도 하고 버선을 3·5·7·9 奇數個를 굴비엮듯 엮어 문 앞에 늘어놓기도 한다. 이같이 신령이나 귀신 등과 대치시키는 물건으로 버선이 자주 이용된다는 것은 버선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이 된다.<sup>26)</sup>

따라서 복식에서의 陽數 사용은 길상의 뜻, 벽사나 병마 등을 막기 위한 주술적 의미라고 볼 수 있다.

## 3. 수의 상징성과 복식의 형태

一·二·三·四·五·六·七·八·九·十·十二·百의 수를 중심으로 내재하고 있는 상징성을 복식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一

一은 수의 처음, 하나, 양수(홀수), 양, 태초의 시

작. 해. 창조자. 유일자. 중심을 나타낸다.

복식

一章服 : 玄衣는 無章이고 纁裳에만 黻 1장을 수 놓았다.<sup>27)</sup>

2) 二

그는 우수, 두 번째, 음, 쌍(둘씩 짝을 이룬)을 표시로서 일반적으로 균형과 조화, 화목 등을 의미한다.

복식

복식에서는 쌍으로 된 문양으로 표현되고 있다. 흉배, <사진 1> 보, 수저집 등에서 볼 수 있다.



<사진 1> 쌍학흉배(기증유물도록 p.80)

3) 三

우리민족이 유난히 가장 많이 사용했던 3은 길수로 최상의 수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3은 三神사상을 결부한 특정한 관념을 부여하였다.

<三神이란 天神, 地神, 人神이다.> <삼신은 하늘을 생기게 하여 만물을 창조한다.> <삼신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다.><sup>28)</sup> <3은 새로움이 된다.> <3은 神秘스러운 것을 상징하는 數이다.>

무릇 삼신은 天-이요, 地-이요, 太-이다. 天-은 造化를 주관하고, 地-은 教化를 주관하고, 太-은 治化를 조관하였다. 그 셋 중에 太-이 가장 貴하다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太가 곧 三이 된다.

3은 따라서 一, 二보다도 크고 귀한 것이며, 三은 곧 中性인 동시에 높은 次元의 創造的 能力을 발휘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민족의 신화에도 3은 신성한 수였다. 따라서 3은 <주역>에서 모든 수의 기본이 되는 핵심적인 수다. 팔괘가 3효로 이뤄졌다는 사실도 증거이다.

역의 6효 괘가 성립되는 수리는 천·지·인 三才를 겸하여 두 배로 한다고 언명했으니, 바로 3과 2에 있다. 무릇 사건을 3에 이르러 극에 달한다. 따라서, 3은 양을 대표하는 동시에 극한 완성을 상징하는 수이다. 이처럼 3의 숫자는 祥瑞의 상징적 수이다.

道에 말하기를 <규는 一에서 시작하는데 일이면 발생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누어져 음양이 되었다. 음양이 화합해서 만물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一이 二를 낳고 二가 三을 낳으며 三이 만물을 낳는다>고 한다. 천지는 3개월을 한 시절로 삼는다. 그러므로 제사에는 三食으로써 예를 삼고 喪禮에는 三踊으로써 예절을 삼으며 병사에서는 三桴를 중히 여겨 제도를 삼았다. 3으로써 만물에 참여시키므로 3을 세 배하면 9다.<sup>29)</sup>

숫자 一은 天, 二는 地, 三은 人이다. 그러면 三은 무엇을 뜻하는가? 삼은 人이라 했으니, 三은 性·命·精이 고루 갖추어진 수정란을 뜻한다. 독립된 한 생명체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지고, 만물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그것을 인식 할 때 비로소 존재 가치를 가지게 되므로, 사람의 인식 속에서 만물이 생겨난다는 뜻이다.

前漢時代에 씌어진 「周髀算經」에는 다음과 같은 文章이 있다.

數之法 出於圓方 圓出於方 方出於矩 矩出於九九八十一萬物

위 문장에서 보면 數理는 곧 圓(○)이나 方(□), 혹은 角(△)과 같은 기하학적 사고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圓은 方에서 나왔으며, 그 方은 또한 角(尺度)에서 나왔고, 다시 그 角은 無限(9×9=81)한 것에서 나왔다는 것은 결국 하나의 종결된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三·一神誥」에는 圓이 天, 方이 地, 角이 人으로 상징되어 있다. 그리고 이때의 天, 地, 人을 三才라고 부르고, 이 三才의 원리야말로 우주의 根本眞理라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때의 天을 陽, 地를 陰, 人을 兩性(五行)으로 해석함으로써 음양오행의 이치도 결국 三의 숫자에서 비롯됨을 암시하고 있다.<sup>30)</sup> 이상



에서 볼 때 3의 선호가 관념 속에 깊이 뿌리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에서는 매년 3월3일에 樂浪 언덕에 모여 사냥을 하고 하늘과 山川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습속이 있었다.<sup>31)</sup> 따라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祭天儀式은 단군 문화의 핵심이며 三神信仰은 제천의 기본원리이다.

3에 대한 상징성으로 '鼎'은 중국의 청동기에서 볼 수 있는 세 발 그릇이다. 그 세 발 청동기가 천·지·인의 원리를 뜻하는 이미지를 본떠 만들었다는 것은 그릇이 귀하고, 큰 기능을 지녔음을 암시한다.

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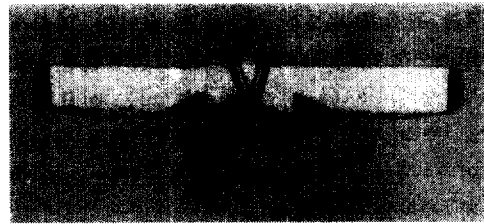
전통한복 원형은 그 체형에 맞게 옷을 마름질하였다. 특히 남자 바지 袴는 허리, 마루폭, 사폭의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허리는 圓象, 마루폭은 方形, 사폭은 三角形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 개의 袴는 이른바 뫼비우스 고리(Möbius strip)의 三次元的인 원리에 의해 재단되어 한 치의 허실도 없이 정확하게 袴의 立體形을 가능케 낸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袴는 결국 立體幾何學의 가늠에 의한 산물이라는 것이다.<sup>32)</sup>

이는 易의 입장에서 볼 때 여기에 우리 복식의 소우주적 의미가 담겨 있다. 바지의 형태 구성이 허리(원, 천, 육), 마루폭(방, 지, 사), 사폭(각, 인, 삼)의 삼재를 나타내는 원리가 적용된 점은 신체를 우주적인 數象으로 보았으며 우주적 수상을 덮는 옷이야말로 우주속의 소우주로 사고하는 입체 기하학적인 원리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우주적 심벌리즘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33)</sup> 이와 같이 한복에는 우리 민족의 사상체계가 언체와의 관계를 상징의 의미론적으로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三章服 : 현의에는 조·분미의 2장문을 그렸고, 훈상에는 黻 1장문을 수놓아, 衣·裳을 합하여 3장문이였다.

삼희장저고리 : 깃·고름·결막이는 자주색, 소매 끝동은 자주색이나 남색을 대어 만든 저고리이다. 삼희장저고리는 깃, 고름, 결막이, 끝동을 다른 색으로 대비 시켜 색채조화를 이루어 조선시대 부인의 예복으로도 입었다.<사진 2>

三작노리개 : 의복의 장식에 해당하는 佩物의 일



<사진 2> 삼희장저고리(한국복식 2천년 p.102.)

종으로서, 가슴을 장식하는 패물이다. 대개는 여러 개를 합해서 사용하는 일이 많고, 특히 삼작노리개가 많다. 이렇게 삼작이 많이 쓰이는 것은 동양인이 3이라는 수를 吉祥의으로 보는 이유도 있고, 3개를 모아 놓으면 구성이 잘 어울리시기 때문이다. 三작노리개는 가래, 혼례의 대표적인 예물이 된다.<사진 3> 명절날 궁중에서 正月 첫 亥日(돌날)은 둥근 주머니를, 첫 子日(쥐날)은 긴 주머니를 王이하 王族들이 차는데 그 속에는 붉은 콩 3알씩이 붉은 종이 봉투에 넣어서 들어 있다. 이는 새해를 맞이하여 1년 내내 액을 면하기 위함이다.



<사진 3> 삼작노리개(기증유물도록 p.44.)

상복 : 「三國志」魏書 東夷傳 高句麗條에 부모와 남편의 初喪에는 3년 동안 服을 입는다.<sup>34)</sup> 하였고 장사를 지낼 때 陽數인 3·5·7일장을 지낸다. 이는 양수를 통하여 死後를 기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4) 四

四는 死와 발음이 같아 우리 나라에서는 기피하는 수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4는 관용어 四神圖, 四君子, 四柱 등 우리의 민속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4는 체계와 질서를 상징하는 수이다. 따라서 우주의 4중체계, 등의 배열이 많이 발견된다. 사신은 사방, 사계, 목, 금, 화, 수를 상징하는 신으로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가리킨다. 수호신으로 벽사의 상징이다. 사신은 四大之像으로 정확히는 춘분, 추분, 하지, 동지를 뜻한다.

복식

四靈은 보통 용, 봉황, 거북, 기린이라 하여 神獸로 나타내는 상징적 숭배의 대상으로 궁중복식, 흥배에 잘 표현되어 있다.

四君子紋은 중국에서 건너와 조선시대로 내려온 것으로 梅·蘭·菊·竹으로 표현되고 있다. 四君子紋에서 梅는 용기와 고결을, 蘭은 우정과 高雅를, 菊은 인생의 풍부한 청춘을, 竹은 곧은 志操를 나타내며<sup>35)</sup> <사진 4> 우리 나라의 전통복식에서 가장 애용된 문양의 하나로 사랑 받았던 것이다.



<사진 4> 사군자문(한국전통의장자료 p.527)

5) 五

음양오행사상으로 五의 숫자는 吉數로 복식에 많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五가 五行의 중심, 즉 모든 有가 탄생될 수 있는 根源的인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의 中心을 數象으로 나타내자면 곧 五·十이 된다. 또한 五는 中央이므로 天과 地가 합치는 자리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五는 가장 기분 좋게 생각되는 數인 동시에 또한 神聖한 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에서는 오방색을 정하고 복식에 오색을 사용하였는데 색채개념보다는 철학적인 색채관이 강하다.

복식

五章服: 현의에는 종이·조·분미의 3장문을 그렸고, 훈상에는 보·불의 2장문을 수놓아 衣·裳 합

하여 5장문으로 하였다. 그리고 오색에 따라 신분계급을 구별하여 입도록 하였다.

색동저고리: 색동은 오행사상에 따른 五色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래 색동을 사용한 의미는 음양오행에 따른 다섯 가지 색을 사용함으로써, 오행을 두루 갖추어 사된 기운을 막고 어린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한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오색의 배치에 있어서도 오행을 相生하는 방향으로 나열하여 건강과 행복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 왔다. 오색천을 붙여서 만든 색동저고리는 주로 돌이나 명절 때 어린아이에게 만들어 입힌다. 그런데 색동에서 나타나는 오색의 正色은 靑·赤·黃·白·黑으로 구성되나, 어린 아이의 색동옷에는 흑색 대신 間色인 연두색이 많이 나타난다. 흑색은 겨울이나 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린이에게는 흑색 대신 화사한 연두색을 사용하여 생동감을 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까치두루마기라 하여 선달 그믐날 어린아이에게 오색으로 된 두루마기를 입히는데, 이 때도 양팔을 색동으로 하였다.<사진 5> 또한 새해가 되면 청·적·황·백·흑의 五方 囊子를 만들어 선물로 주고 받기도 하는데 이는 희망을 기원하는 것이라 하겠다.



<사진 5> 까치두루마기(기증유물도록 p.29)

6) 六

六은 成數이다. 一과 같이 水를 뜻하기도 한다. 전통혼례의 六禮가 있고 六服이 있다.

복식

육복: 중국 주나라때 황후가 입던 여섯가지 옷이다. 三翟이라 하여 꿩 무늬가 있는 褙衣·유적·궤적은 제복이고, 三衣라 하여 무늬가 없는 國的·전의·단의가 公服 및 常服이다.<sup>36)</sup>

## 7) 七

7은 서양에서 행운의 수로 뜻하며, 동양에서는 7은 천수로 신성수를 의미한다.

七이라는 숫자는 분명히 日月星辰을 나타내는 숫자이다. 이를테면 해와 달을 비롯한 金, 木, 水, 火, 土의 다섯 별이 그것이다. 日과 月은 음양의 기본이며 나머지 다섯 별은 음양의 變奏이다. 즉 木, 火는 陽의 二分化, 金, 水는 陰의 二分化, 그리고 土는 中性이다. 따라서 이를 보이는 상태로 정리한다면 음양오행이 되며, 또 보이지 않는 입장에서 정리해 보자면 三極의 원리가 된다. 즉 日과 月이 陰과 陽이 되며 오행이 곧 중성에 의해 통일되는 하나의 물체가 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학자들에 의하면 陽의 완성을 표현한 수는 7의 수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양의 숫자는 본래 7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그 위치의 특수성을 들어 그 상징은 7개의 별자리를 가리키며, 이것을 七星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일월성신, 특히 28수의 성좌는 팔방으로 우주공간의 도식화된 원주의 둘레를 감싸고 결합되어 청룡신에 동방 7수가, 주작신에 남방 7수가, 백호신에 서방 7수가, 현무신에 북방 7수가 각기 배당되는 것이다.<sup>37)</sup>

천부경에서 三으로 하여 물질의 독립이 이루어지고 四로 하여 하나의 완결된 총체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三과 四로서 빛어지는 數, 七은 완성의 數, 만능의 數를 뜻하기도 한다.

## 복식

七章服: 의는 玄色으로 華蟲·火·宗彝의 3장문을 그렸고, 상은 纁色으로 藻·粉米·黼·黻의 4장문을 수놓아 의, 상을 합하여 7장문으로 하였다.

그리고 길상문의 하나인 七寶紋, 여자 비녀의 일종인 칠보잠 등이 있다.

고구려의 장군총 역시 7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백제의 금동관이 일곱 개의 가지가 달린 나무를 장식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에서 七字도 만사가 뜻대로 되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의복 등의 의장 무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8) 八

여덟 가지 상서로운 길상문인 八寶紋이 있다. 복식에서보다는 수저집 등에 수 놓았다.

## 9) 九

九는 창조의 한자이다. 곧 3으로 環元되는 수가 되므로 數字속에 이미 天, 地, 人의 原理가 내포되어 있다. <眞經>에서는 三變成道天人乎 九變九復天人乎 이라 하여 세 번 변화되어 도를 이루니 天人이며, 아홉 번 변하고 아홉 번 되풀이되니 天人이라 하였고 구변 구복에는  $9 \times 9 = 81$ 의 천부경의 수리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천부의 진리를 통달하여 天人이 됨을 말한다.<sup>38)</sup> 이상의 기록으로 보아 「구구팔십일」이란 숫자를 고대에는 매우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고대인의 숫자 개념상 九는 끝 수, 마감 수였기 때문이며, 구 다음 십은 다음 단계로 전환되어 새로 시작하는 一을 의미하기 때문에, 십은 완성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뜻한다. 그래서, 십은 곧 일을 뜻한다. 그리고 숫자 구는 막다른 골목, 더 갈 수 없는 한계점을 뜻하기 때문에, 구구팔십일은 숫자 개념상 모든 것의 완성을 뜻한다.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곧 새로운 시작을 뜻하기도 한다.

천부경에서 보았듯이, 시작과 끝은 다르지 않다. 그리고, 모든 것의 완성과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구구팔십일」의 개념과 천부경의 사상은 서로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운은 81자로 한정하여 천부경을 번역하였던 것이다.

천부경에 의하면 九는 三의 세곱의 數로 되어있다. 즉 三은 인(兩性)의 象인 △型的 數象이므로, 九는 삼각형의 3倍擴大의 원리에 따라  $3 \times 3 = 9$ 의 수로 변한 자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九는 三과 함께 신비에 속하는 數이다. 「周髀算經」은 九九八十一이 萬이라 하였다.<sup>39)</sup> 즉, 모든 것의 끝, 모든 것의 총만을 뜻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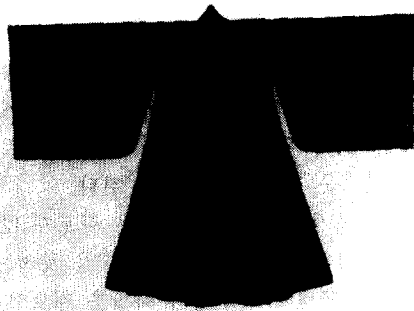
예를 들어 고대 중국에서는 9鼎을 만들었다고 한다. 9鼎이란 天子의 상징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상에서 九數는 신비한 위력을 나타내는 數임이 분명하며 가장 크고, 넓고, 강력한 최고의 수이다.

## 복식

九章服: 고려 말엽부터 조선조에 걸쳐 왕이 착용한 구장문의 대례복, 종묘제례, 즉위, 正朝의 하례식, 妃를 맞을 때 착용했다. 의, 상, 중단, 대대, 혁대, 폐슬, 패옥, 수, 규, 말, 석으로 구성된다. 의는 심청색이나 현색의 紗 또는 絹으로 만든다. 깃, 도

런. 소매 끝에 의색과 같은색의 선을 두르며 5장문이 그려지는데 양 어깨에는 용이, 등에는 산이, 양 소매에는 불·화층과 종이의 문이 놓인다, 상은 혼색의 무늬있는 비단으로 만들며 조·분미·보·불의 4장문이 수놓아진다. 중단은 백색의 사로 만들며 깃, 도련, 소매 끝에는 청색선이 둘러지고 옷깃에 11개의 불문이 금박된다.<sup>40)</sup> 고종황제는 12류면류관과 12장복이며 황태자 면복은 「세종실록」관복도에 서 정한 종래에 조선시대 국왕이 입었던 9류 면류관에 9장복을 착용하였다.<sup>4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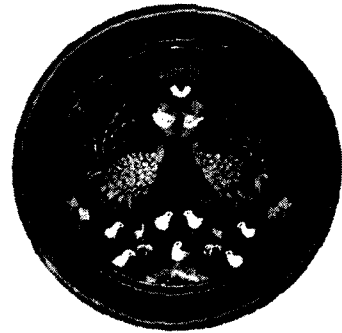
적의 : 妃·嬪의 대례복으로 푸른 바탕에 평무늬(翟紋)을 9등으로 수 놓은 것이다.<사진 6>



<사진 6> 적의 (궁중유물전시관 p.23.)

영조의 <국조오례의보>에 나타난 왕비의 적의 제도는 다음과 같다. 대홍단으로 衣 전후에는 금수한 오조룡보를 첨부하고 前補 밑에서 의단에 이르기까지 圓翟을 수놓아 좌 7, 우 7을 첨부하되 의단의 좌우 각 1을 안으로 구부려 서로 연이은 것같이 하였다. 後補 밑에서 의단에 이르기까지 원적을 수놓아 좌 9, 우 9를 첨부하고 또 의단 가운데에 1을 첨부하여 서로 연이은 것같이 하였다. 또 좌우의 넓은 소매는 衣 길이와 가지런히 하고 수구 외면에 또한 원적을 수 놓아 좌 9, 우 9를 첨부하였는데 원적의 수는 51개이다.<sup>42)</sup>

또한 베갯모를 보면 일곱 마리 새끼를 거느린 봉황 한 쌍을 마주 보도록 수놓고 둘레에 십장생과 완자 무늬로 꾸민 베개를 九鳳枕<사진 7>이라 하는데 9는 양의 기운이 가득하게 하여 생동하는 뜻으로 자녀를 많이 두라는 뜻을 담고 있다. 九의 숫자는 권위와 부귀의 상징으로 여겼다.



<사진 7> 九鳳枕 (한국전통의장자료 p.579.)

### 10) 十

十은 새롭게 나가는 數이다. 천부경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天과 地가 합친다는 것은 곧 十字를 뜻한다. 十은 곧 無이다. 또한 十이나 木은 모두 생명나무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十은 절대적 완전한 數 일뿐만 아니라 꼭 차서 넘치는 수기도 하다.

천부경에서도 10수를 天과 地를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천부경에는 또 하나의 요소가 추가되고 있으니 人이 바로 그것이다. 즉 천부경은 10수를 天數와 地數와 人數의 三者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 복식

가장 널리 쓰인 길상문으로 十長生紋이다. 학, 거북, 사슴, 소나무, 대나무, 해, 구름, 바위(산), 물, 불로초 등의 10가지를 상징한다.<사진 8> 베갯모, 복주머니, 수저집, 병풍 등 장생의 염원을 담고 있다.



<사진 8> 십장생문(한국전통의장자료 p.571)

### 11) 十二

十二는 支數이다. 十이 天(陽)의 數라면 十二는 地(陰)의 數이다. 그러므로 十二數는 원칙적으로 十數에 연속되어 활동하는 數라고 볼 수 있다. 즉 음양오행의 조화에서 정립된다. 12수는 12달, 십이지를 상징하는 수로 사용되는 관용어로 쓰인다.

복식

十二章服 : 12장복은 황제의 복식이다. 이는 중국 황제와 같은 신분임을 나타낸 것이다. 황제의 면복은 12면류관에 12장복은 중국 황제의 면복과 같은 것으로서 12류가 있는 면류관에 12장문이 있는 곤복으로 구성되었다.

중국 皇帝冠服을 살펴보면 玄衣에 纁裳을 착용하는데 8章이 옷에 있고, 日, 月, 星, 龍, 華虫, 火, 山, 宗彝이다. 4章은 裳에 있다. 藻, 粉米, 黼, 黻이다.

옷에는 升龍을 織成한 문양으로 깃, 단 처리를 하였다. 龍, 山이하 每章을 1行씩 12行을 놓았다.<sup>43)</sup>

고종황제의 곤복에 나타난 12장문은 日, 月, 星辰은 天者의 표식으로 여기에 산, 용, 화충을 더한 6장문은 의에 회화적 도상으로 하고 종이, 조, 화, 분미, 보, 불은 자수적 도상으로 하였다. 이는 면복은 현의, 훈상으로 의에는 繪하는데 회는 陽事이기 때문에 상의인 현의에 베풀고 상에는 수놓는데 수는 陰事이므로 하의인 훈상에 베푸는 것으로서 이는 陰陽의 이치를 나타낸 것이다. 현의에 6장을 그리되, 해와 달이 어깨에 있고, 별과 산은 등 뒤에 있고 용과 화충은 두 소매에 있다.

深衣 : 심의의 각 부분에는 철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衣와 裳이 나뉘어진 것은 乾坤을 뜻하며 12폭은 1년 4개월이 12달로 구현된다는 의미이다.

심의 각 부위의 형태는 우주의 원리를 담아 상징적인 의미를 띠는 경우가 많다. 심의를 12폭으로 만든 것 역시 1년 12월에 따른 것으로서 하늘의 이치를 담은 것이다. 그런데 이 12폭이 심의 전체를 말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裳만을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글의 흐름으로 보아 12폭으로 만든다는 것은 심의 상·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 12폭이 상징하는 바 1년 12월이란 6陽 6陰으로서 6陽은 上衣, 6陰은 下衣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하를 합한 전체가 12폭이라는 설이 더 타당성이 있다. 등술(直)이 政에 따르고 깃(方)이 義에 따른 것은 땅의 이치를 살핀 것이다. 衣와 裳은 4時, 12月을 본뜬 것이다. 衣가 4폭인 것은 4時에서 취한 것이고 裳이 12폭인 것은 12개월에서 취한 것이니, 衣 1폭에 裳 3쪽을 연결하는 것은 매 時가 3개월인 것을 상징한다. 또, 이처럼 4

時, 12月을 본뜬 것은 5行에 응하는 것이다.<sup>44)</sup>

즉 심의는 기본 우주의 원리를 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자연의 우주적인 원리를 본받아 우주와 인간과 의복이 조화를 이루어 이로써 심의에 대한 상징성은 유교 철학적인 견지에서 해석된다.

12) 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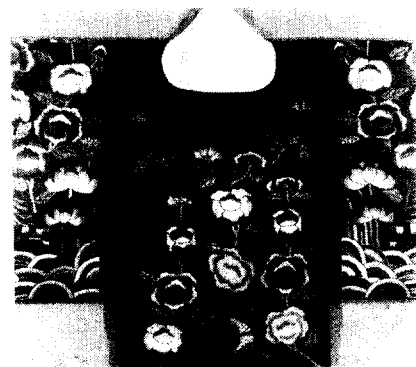
百은 완성과 전체, 진실과 가득참, 장수를 상징하는 숫자이다.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신단수도 생명수의 하나이다. 그 밑에서 곰과 범이 사람이 되고 싶다고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 짐승들을 본 환웅은 마늘과 쑥을 주면서 百일간 햇빛을 피하라고 하였다. 곰은 21일만에 여자의 모습으로 변신하였다.<sup>45)</sup>

인간의 탄생과 죽음의 과정에서 百이라는 숫자는 날자와 결합하여 중요한 상징수로 쓰인다. 백일 치성이나 백일 공덕 또는 갓난아이의 백일 잔치는 삼칠일 동안의 금기 사항과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가 끝나고 하나의 완전한 인간으로 대접받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백일 떡은 百집과 나누어 먹고, 百집에서 얻어 온 百조각의 천으로 옷을 해 입히면 아이가 건강하게 백수를 누린다고 한다.

강원도에서는 백중날에 서낭제를 지내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한다. 이러한 명절의 행사에 백이라는 숫자가 등장함은 풍요로움에서 비롯한다. 백의 상징성은 인생과 결부되어 '꼭 참'이나 '완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혼례복 활옷에서 보면 진동선 위치의 左에 百福之源의 글자 문양을 수놓았고,<sup>46)</sup> <사진 9> 또 혼례



<사진 9> 활옷(한국복식 2천년 p.73)

시 백년가약, 백년해로 등의 의미는 결혼하여 부부가 한평생 화목하게 함께 지내라는 뜻으로 百은 장수를 상징하기도 한다.

#### IV. 결 론

복식에 나타난 수의 상징성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대 동양의 數 개념의 사상체계는 天·地·人 三才 사상에 나타나 있다. 여러 가지 추상적 의미의 상징을 부여하여 자연(우주)질서의 순환운동 및 생성원리를 유지시키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역의 수, 하도·낙서의 수, 천부경의 수, 오행의 수, 십간·십이지의 수 등에서 살펴보면 기본 數는 1부터 10까지이다.

天은 1, 地는 2, 人은 3을 상징으로 하여 음양오행 사상을 토대로 天數(陽數) 1·3·5·7·9와 地數(陰數) 2·4·6·8·10으로 구분하여 홀수는 陽數이고 짝수는 陰數이다. 오행에서는 生數(1·2·3·4·5)와 成數(6·7·8·9·10)으로 배당하여 체계화시켜 우주와 만물이 순환하는 근본원리를 표현하였다. 十干·十二支에 관한 수(기호)의 사상체계는 서술적 질서를 배열하여 일상생활의 설계도를 형성하여 활용하였다.

우리 민족이 선호한 홀수(1·3·5·7·9)는 陽氣가 왕성한 吉數로 여겼다. 구장복, 삼희장저고리, 삼작노리개, 오색의 색등저고리 등의 복식에서 이러한 홀수 선호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왕·왕비 등의 궁중복식에서는 9·7·5·3장복 등이 있으며, 황제의 12장복은 짝수이긴 하나 12달을 상징하여 우주의 원리를 삼았다. 또한 深衣의 12 폭도 하늘의 이치를 담은 것이라 하겠다. 한복바지 형태는 圓(○), 方(□), 角(△)을 형성하여 3차원적인 원리에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홀수 중 3의 수는 天·地·人의 신성수로 인식하여 삼신사상과 더불어 최고의 수로 여겨 복식의 미적 표현과 더불어 祈福의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다.

十·百의 수도 자주 애용되었는데 그 의미는 충만한, 가득함, 장수를 뜻한다. 따라서 十長生紋이나 아기 때 입히는 백 조각으로 된 의복은 무병장수를

의미한다. 또 혼례복인 활옷에는 百福之源의 문양을 수놓아 부부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였다.

이상에서 복식을 통해서 본 수의 상징성은 음수보다는 양수를 선호하여 길상의 뜻, 벽사, 주술적 의미로 의복 및 민속에 영향을 주어 그 수의 사상체계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數理가 지닌 깊은 의미와 상징은 우주의 섭리와 순환에 순응하여 우주와 인간과 의복이 조화하여 정신적 염원을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양재혁, 동양철학, 소나무, 1999, p.137.
- 2) 상계서, p.139.
- 3) 한국주역학회, 주역과 한국역학, 범양사출판부, 1996, p.145.
- 4) 김용운, 인간학으로서의 수학, 우성문화사, 2000, p.302.
- 5) 김상보, 음양오행사상으로 본 조선왕조의 제사음식문화, 수학사, 1996, p.85.
- 6) 이기석, 주역, 서문당, 1978, p.4.
- 7) 한국주역학회, 전계서, p.13.
- 8) 한국주역학회, 상계서, p.152.
- 9) 최영진, 주역, 동아출판사, 1994, pp.72~74.
- 10) 양재혁, 전계서, p.152.
- 11) 조하선, 베일빛은 천부경, 물병자리, 1999, p.400.
- 12) 최영진, 주역의 기초이론과 사상체계, p.17.
- 13) 박용숙, 한국미술의 기원, 예경, 1996, pp.95~96.
- 14) 김동춘, 천부경과 단군신화, 가나출판사, p.27.
- 15) 박용숙, 한국고대미술문화사론, 일지사, 1992, pp.13~15.
- 16) 김동춘, 전계서, p.41.
- 17) 박용숙, 전계서, pp.16~19.
- 18) 김홍경 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1993, p.293.
- 19) 이석호 역, 회남자, 세계사, 1992, p.78.
- 20) 양재혁, 전계서, pp.143~144.
- 21) 이석호 역, 전계서, p.104.
- 22) 배도식, 한국민속의현장, 집문당, 1993, p.314.
- 23) 석주선, 우리옷나라, 현암사, 1998, p.81.
- 24) 이규태, 우리 옷 이야기, 기린원, 1991, p.162.
- 25) 허동화, 우리규방문화, 현암사, 1998, p.322.
- 26) 이규태, 전계서, p.230.
- 27) 유희경·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1998, p.132.
- 28) 고동영, 환단고기, 한뿌리, 1996, p.133.
- 29) 이석호, 전계서, p.83.
- 30) 박용숙, 한국고대미술미술문화사론, 전계서, pp.9~10.
- 31) 김철준·최병현, 한국문화사-고대편, 일지사, 1990, p.115.

- 32) 박용숙, 한국고대미술문화사론, 전개서, pp.337~338.
- 33) 이선재, 의상학의 이해, 학문사, 1998, p.88.
- 34) 정혜경, 심의, 경남대학교출판부, 1998, p.38.
- 35)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6, p.512.
- 36) 김영숙,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998, p.307.
- 37) 박용숙, 한국미술의기원, 전개서, p.67.
- 38) 조하선, 전개서, p.381
- 39) 박용숙, 한국고대미술문화사론, 전개서, p.40.
- 40) 김영숙, 한국복식사사전, 민문고, 1988, p.69.
- 41) 유송옥, 한국복식사, 수학사, 1998, p.208.
- 42) 이선재, 전개서, pp.80~81.
- 43) 임명미, 몽고복식, 경춘사, 1992, p.164.
- 44) 정혜경, 전개서, p.215.
- 4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의 문화유산, 민속원, 1997, p.54.
- 46) 이순홍, 한국전통혼인고, 학연문화사, 1992, p.212.